



즉시 배포용: 2025년 6월 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공화당의 '엄청난' 화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 주민들의 월 건강 보험료가 엄청나게 인상될 것이라는 새로운 자료 공개

미국 구조 계획의 세액 공제 혜택 폐지 및 추가 변경으로 24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보험료 인상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

강화된 세액 공제 폐지로 인해 평균 월 비용이 228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부부의 경우 38% 증가한 수치에 해당됨

뉴욕 주민 65,000명에서 80,000명(등록자 약 3분의 1)이 개인 마켓플레이스 보장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됨

지역별 비용 증가 내역은 [여기에서 확인](#); 의회 선거구 내역은 [여기에서 확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공화당의 '엄청난(Big Ugly)' 화해 법안이 뉴욕 가정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법안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의 건강 보험 보장을 심각하게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무보험자 수를 150만 명 늘리고 뉴욕 의료 시스템에서 연간 135억 달러의 자금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 뉴욕 주민의 개인 건강 보험료를 급격히 인상하고, 주 공식 건강 보험 시장인 뉴욕주 보건부(NY State of Health)를 통해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이 '엄청난' 법안은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보장을 대폭 축소하고 월 의료비를 수백 달러 인상할 것입니다. 뉴욕 공화당 대표단이 자기 지역구민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전국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보험사 및 주 정부 지도자들은 연방 의료 지원에 대한 예산을 수십억 달러 삭감하는 법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160만 명의 필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장을 위협에 빠뜨리거나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없앨 뿐만 아니라,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한 많은 뉴욕 주민의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구조 계획의 향상된 (American Rescue Plan) 보험료 세액 공제만 없어도 주 전역의 순 보장 비용이 평균 [38% 증가할 것이며, 이는 주 시장을](#)

통해 보장 상품을 구매하는 저소득 개인과 가족 14만 명의 비용입니다. 소득 상한은 개인의 경우 월 114달러, 두 사람의 경우 월 228달러입니다.

주 전체에서 American Rescue Plan의 향상된 보험료 세액 공제가 없어짐에 따라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부부의 월 평균 비용 증가액(\$)	부부의 월 평균 비용 증가율(%)
New York City	\$211	38%
Mid-Hudson	\$206	31%
Long Island	\$219	32%
Capital Region	\$231	33%
Western New York	\$267	38%
Central New York	\$256	43%
Finger Lakes	\$248	42%
Mohawk Valley	\$270	49%
Southern Tier	\$265	48%
North Country	\$253	44%
뉴욕주 전역	\$228	38%

향상된 보험료 세액 공제의 폐지와 제안된 미국 하원 공화당 조정 법안의 추가 조항이 합쳐지면 건강한 소비자가 보험 시장에서 밀려나고, 그에 따라 건강하지 못한 계층이 남게 되어 보험료가 더욱 인상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보험 비용이 급증하고 개인과 가족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James McDonal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의료 지원에 대한 제안된 삭감은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삭감으로 인해 뉴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험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뉴욕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건강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이룬 진전을 훼손합니다. 사람들이 건강 보험을 잃으면 필요한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저소득 개인과 가족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외에도, 세액 공제가 폐지되면 개인 상업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하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1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세액공제 폐지로 인해 소비자와 가족들이 내년에 보험료가 4.3%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초기 추산에 따르면 제안된 법안으로 인해 65,000명에서 80,000명(개인 시장 등록자의 약 3분의 1)이 보험 적용을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및 갱신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당한 새로운 번거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안된 법안은 또한 뉴욕이 자체 시장을 운영하고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 유연성과 자율성을 박탈하고, 주에 과중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행정적 부담을 줄 것입니다. 주정부는 이 법안에서 요구하는 변화를 시행하는 데 1,000만 달러 이상의 새로운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Danielle Holahan 뉴욕주 보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복리효과에 대해 엄청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세액 공제 만료와 맞물리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재정 지원 자격을 낮추면 결국 사람들은 병원 방문, 약물, 정신 건강 치료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특히 주 내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 제안에 따라 운영을 지속할 수 없을 수도 있으며, 이는 뉴욕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더욱 제한할 것입니다."

뉴욕은 지난 12년 동안 마켓플레이스 운영에 있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670만 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 전체의 무보험률은 5% 미만으로 전국의 주요 주 중 가장 낮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에서 수십 년간 진행된 의료 보장 확대와 의료 서비스의 저렴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뒤집고 주 전역의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